

‘전략·투자 전문가’ 전면에… 한미약품그룹, 체질개선 시동

외부 전문가 중심 이사회·경영진 창업주 측 경영권 강화 포석 해석
황상연 대표 “주주 이익 극대화”



황상연 한미약품 신입 대표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이 법조인 출신과 금융업계 인사를 이사회 전면에 배치했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투자’ 전문가를 각각 새롭게 영입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다.

3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은 라데팡스파트너스라는 강력한 우군을 지주사 이사회에 진입시키며 경영권을 강화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김남규 대표는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 변호사, 삼성에스원 준법경영팀장 등을 거친 법조인으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최고리스크책임자(CRO)를 역임한 ‘전략통’으로 꼽힌다.

김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합류는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라데팡스파트너스는 표면적으로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으로 구성된 ‘4자 연합’ 중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동국 이사가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인사였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4자 연합 내부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었다.

실제로 4자 연합은 이미 법적 공방에 돌입해 있다. 송영숙·임주현·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동국 이사를 상대로 약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이 이뤄진 상태다. 킬링턴유한회사는 라데팡스의 특수목적 법인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 4자 연합이 52.63%를 차지하고 있다. 신동국 이사 29.83%, 라데팡스파트너스 9.81%, 임주현 부회장 9.15%, 송영숙 회장 3.84% 순이다. 이밖에 임중훈 이사는 6.46%를 가졌다.

한미약품도 ‘뉴 한미’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를 재정비했다.

같은 날 진행된 한미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부문 대표가 한미약품 신입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주총 직후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올라섰다. 한미약품그룹 창사 이래 최초의 외부 인사로, 정통 한미맨 중심의 내부 승진 인사 기조를 꺾었다.

황상연 대표는 투자 전문가다. 브레인 자산운용 대표, 증권당홀딩스 대표, 엠디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하며 제약 업계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황상연 한미약품 신입 대표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황 신임 대표는 “금융권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30여년간 한미약품을 분석하고 연구해 왔다”며 “기대에는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황 신임 대표는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관계 속 ‘독립 경영’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주주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총주주 이익 극대화와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인간 존중·가치 창조’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그룹 내 자회사로서 독립 경영의 관점을 유지하되, 지주사가 추진하는 그룹의 큰 기조에 맞춰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시로 상의하며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이사와의 설전 끝에 송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박재현 대표의 연임이 불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업계는 황상연 체제의 연착륙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상정된 김태운 감사 위원 연임 건,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 개발본부장·채이배 전(前) 국회의원·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 등의 신규 선임 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옴리클로’, 브라질서 입찰 수주

론허 행사 열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
임상 데이터·글로벌 처방 경험 공유



셀트리온은 중남미 최대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옴리클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중남미 최대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옴리클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출시 초반부터 브라질 주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시장 선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론칭 행사를 통해 현지 주요 의료 관계자 대상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 내 알레르기·호흡기·피부과 전문 의료진과 보험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 ▲글로벌 처방 경험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활용 가치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옴리클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특히 제품 처방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이번 론칭 행사를 통해 브라질 내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여 향후 옴리클로 처방 확대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지난해 11월 옴리클로를 출시한 이후, 최근 산타카

타리나(Santa Catarina) 주정부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는 등 공급 채널을 조기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옴리클로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출시돼 추가적인 입찰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센텔리안24,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 참가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는 지난달 26~29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세계 최대 뷰티 전시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텔리안24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참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브랜드 단독 부스를 운영해 글로벌 바이어와 적극 교류했다. 우선 글로벌 온라인몰인 아마존과 틱톡샵에서 각각

베스트셀러 7위, 5위 등을 기록한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를 비롯해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였다.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는 5가지 특허 기술과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테카) 성분을 집약한 ‘뉴 활성-테카’가 적용된 제품이다. 유효성분 흡수 깊이 및 속도를 251% 빠르게 개선하고, 피부 3층 아래까지 전달해 준다.

이와 함께 피부 탄력을 위한 PDRN 제품군,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맥스 등을 소개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오쏘몰’ 3년 연속 판매 1위

동아제약은 글로벌 리서치 기업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 조사 결과, 오쏘몰이 국내 온·오프라인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전 유통 채널의 멀티비타민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오쏘몰은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브랜드로 국내 공식 파트너인 동아제약을 통해 2020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이청하 기자

지씨셀, CAR-NK 기술특허 출원

고형암 분야로 적용 가능성 확장
대량 생산 가능한 범용 치료제 장점

지씨셀은 고형암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세포치료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씨셀의 CAR-NK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인18.2(CLD N18.2)을 표적하도록 개발된 파이프라인이며 고형암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한 사례다.

클라우드인18.2는 위암, 췌장암, 식도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항원이다. 또 CAR-NK 치료제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CAR-T 치료

제와 달리, 건강한 공여자의 세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범용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NK세포의 선천 면역 특성을 갖춰 높은 안전성이 기대되며 제조 및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화를 통해 치료 비용 절감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이번 특허 CAR-NK 플랫폼 기반 고형암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의 연속적인 성과 중 하나”라며 “향후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피부 회복 돕는 ‘이지에프 엑스’ 라인 출시

대용제약, 겔·세럼 등 총 6종

대용제약은 디엔코스메틱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유’에서 피부 장벽의 다운타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지에프 엑스(사진)’ 제품군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지에프 엑스 제품군은 피부 전문관리 또는 일상 속 다양한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이 정상 상태로 관리되기까지 소요되는 ‘다운타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지에프 엑스 라인은 대용제약의 인체 동일 구조, 고순도 DW-EGF에 전해질, 항노화 성분으로 주목받는 NAD 등을 결합한 복합 성분 ‘이지에프 엑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출시 제품은 겔, 세럼, 트림, 마스크, 선제품, 비비 등 총 6종이다. 대표 제품



인 ‘다운타임 오인트 겔’은 DW-EGF 성분을 국내 최대 함량인 10ppm 함유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다운타임 속도를 2배 이상 단축하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지유 관계자는 “이지유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지에프 엑스 라인은 기존의 피부 개선을 넘어 한층 강화된 피부 장벽 케어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